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문을 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로컬푸드 직매장 '대박' 지역농업 활로 찾기 청신호

전남 지자체 첫 직영...영세농들 소득 기여
예상 매출액 웃돌아...내년 원도심에 2호점

나주시가 전남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빛가람 혁신 도시 내에 직영 '로컬푸드직매장(빛가람점)'을 공식 오픈하고 영업에 들어갔다. 개점 첫날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어설 정도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나주시는 빛가람점의 성공을 시작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침체한 지역농업에 새로운 활로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빛가람점 개장에 이어 내년에는 나주 원도심에 2호점을 개장하는 등 직매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개장 첫날 매출 1200만원 달성...재방문율 높아=2일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점은 시험운영을 거치고 지난 25일 공식 오픈했다. 개점 첫날 '개장 효과'에 힘입어 하루 매출 1200만원을 기록했으며, 이후 하루평균 400만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나주시가 빛가람점 개점을 앞두고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인 하루 평균 250만원의 예상 매출액을 크게 웃돈 것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빛가람점은 혁신도시에 있는 빛가람중학교와 LH4단지 사이에 있으며,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다.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반찬류, 제과제빵류, 화훼류 등 300여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흥형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방문 고객 대부분이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젊은층이 많고, 재방문율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전남 첫 자치단체 직영 매장...성공 열쇠는 신뢰=전국적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은 100여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지역 농협이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빛가람점의 사례처럼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전남에서 첫 시도다.

나주시는 직영점의 성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간지원조직인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직영조직으로 신설하고 각 가정 식탁에 필요한 300여 가지의 다양한 품목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과 함께 센터 직원들은 100여개 마을을 직접 돌며 직접 로컬푸드 사업을 준비한 끝에 324개 농가와 계약을 맺고 200여 농산물을 출하 받고 있다. 지역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된 100여개 가공식품도 매장에서 선보이고 있다.

나주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하기 위해선 소비자와의 신뢰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각 농산물에 대한 검사 등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특히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별 진열 및 판매기간 준수, 농약잔류검사, 로컬푸드 인증제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영세 소농·고령농 안정적 소득 보장에 초점=로컬푸드 직매장은 매일 농가에서 직접 소포장한 농산물을 진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대규모 경작을 하는 상업농보다 영세한 소농과 고령농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배추 등 10가지 농산물을 직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농민 김용희씨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안정적인 판로가 마련돼 소농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는 2호점, 3호점으로 확대돼 지역의 농가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나주형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은 민선 6기 강인규 나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을 비롯한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활성화 등의 다양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로컬푸드직매장은 대규모 농사를 짓는 대농이 아니라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농민과 고령농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강인규 시장 "내년 시정, 시민 중심 체감행정 역점"

교육지원·100원 택시 확대 등

강인규 나주시장은 "2016년 시정 방향은 시민들이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1일 열린 12월 정례회에서 "체감행정 역점사업으로 진로진학 아카데미와 자기주도 학습 등 교육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안심귀가 서비스 도입, 100원 택시 확대, 버스노선 합리적 정비, 순환형 셔틀버스 도입, 노인건강

지원사업 확대 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로와 가로등, 가로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시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가정 '클린 나주캠페인'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내년 5월 나주에서 열리는 2016세계친환경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환경도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라도 '클린 나주 캠페인'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공직자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문화·안전 분야의 정부 투자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나주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내년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시 2년 이상 근무 기간제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임금 올리고 호봉제 실시

나주시가 시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해온 기간제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호봉도 무기직 대신 실무원과 전문직종에 맞는 직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임금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호봉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2일 "최근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시청 노조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위원장 전순영)과 임금인상인 등 7개 분야에 걸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단체 교섭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나주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2년초과 기간제 근로자 36명 가운데 1차로 18명을 정규직인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도 민선 6기동안 무기직으로 전환한다. 또 방문간호사의 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 봉급 체계에 준하는 호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호봉도 일반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무기직 대신에



나주시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임금 인상인 등 7개 분야 합의안을 협약했다.

실무원과 전문 직종에 맞는 직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임금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부족한 인력 충원 등 세 부분이 대해서도 노조와 합의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민선 6기 강인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조직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직원에게 맞춤형 업무분장 마련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협업 배치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숙련된 발 관리로 어르신 건강 챙겨요"

나주보건소 발관리사 25명

경로당 등 본격 서비스 나서

나주보건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발관리 서비스를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나주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25명이 3인 1조로 7개팀으로 구성돼 경로당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발마사지를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 건강 발관리 서비스사업은 발의 반사부위를 자극하는 자연치매요법으로, 건강을 도모하는 예방의약의 한 분



나주시 발관리 서비스팀이 최근 지역 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발마사지를 제공하고 있다.

야다. 발 마사지는 특히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을 제거해 피로나 스트

레스, 당뇨, 요통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 KTX 5분거리
- 시청 10분거리
- 도로 교통망 최고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 선착순 동, 호수지정
- 풍부한 임대수요
- 우수한 교육환경
- 편리한 교통편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온세계 아파트

문의 062 383-6400